朝鮮日報
朝刊
朝夕刊合八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反파시스트運動

一

파쇼獨逸의 左翼及猶太人彈壓을 契機로하야 反파시스트運動이 國際的으로 進展되고잇다 西班牙首都마드리드에서열린 反파시스트大會에는 첼킨스顧 바르뷔쓰氏以下各國의急進主義者들이 出席하야『智識階級과 筋肉勞動者는一致하야 이運動에 參加하라』고呼訴하얏스며 파시즘이 蘇聯을除한 모든나라를 席捲하고잇스니이를 阻止할수가 업다고主張하엿다 파시즘이伊太利에서 發生되엇슬때에 一般自由主義者 民主主義者들은 그毒命을 極히 蔑視하엿고 西班牙에서 그 模造品으로 생기엇든리베라 獨裁가 覆滅된것을自由主義의 勝利로 解釋하려하엿다 그러나 世界恐慌의猛風은 各國에 잇서서 파시즘의 火炎을 이르키게 되엇다 獨逸의 褐色政黨이 選擧가 잇슬때마다 勝勢하야 마츰내 獨裁의 夢想을 實現함에어르럿고 民主主義의 本營인 英 米에서까지 强大한權力의 集中을 必要로 느끼게되어 曰 協力內閣 曰大統領의 非常權力賦與等의 手段을 實際化하게되엇다

二

이러한 파시즘의 流行은勿論 그根底에 잇서서 現下各列强의 切迫한 政治的 經濟的 情勢에 基因한 것으로 파시스트運動의 主要한 特徵은要컨데 破産에臨한 現經濟組織을擁護維持하기위한 非常手段이라함에 틀림업고 一種의經濟的乃至 政治的戒嚴狀態라고할것이다 그러함에不拘하고파시즘의 外形에는 써로反資本主義的인 色彩가 들어나는수가잇다 거기다가 强烈한民族主義的綱領을 加味하야 一部 靑年層 中産層 浮遊層의歡心을사게되는것이다 나치스一派의 在野時代의 政策이라든지 現下 公判廷에 잇는日本白色테러團의 供述等을 보면 이러한 特色의 典型을看取할수가잇다 그러나 이反資本主義的色彩가 一種의 假面에不過한것 그 强力的 國民主義 實行主義가 結局殘忍한排他主義 武斷主義로 展開되는것은 히틀러一派의 歷史를보다 分明하다

三

이 假裝的反資本主義性의眞面을 理解치 못하거나 또는그神話的인『權力集中主義』『實行主義』『突進主義』의 神秘性에 甘醉하야 目的을 考察하기前에 手段方法에 絶對價値를 發見하는者가 잇스면이는 파시즘의 陷穽에 싸지는것이다 獨逸파시즘의 亂舞에依하야 이러한 假面이 世界의아페 敗脫되것은 多幸한일이다 道德의 絶對性을 認하는것이人類의 文化的 進步에桎梏이 되는것처럼『힘』『組織力』의 絶對價値를 認定하는것은 人類文化發展의 牢獄이되고말것이다 今日에잇서서 反파시스트運動은 進步를 위한 十字軍의役割을가젓다 國際主義는 勿論이요 進步的民族主義는國際主義와 一致하야파시스트的傾向과 對照의立場에서 잇는것이다

駐日中公使에 殷汝耕任命乎

蔣氏辭意强硬하야

【電通上海二十九日發】 駐日公使蔣作賓은 辭意가鞏固함으로 蔣氏를 駐奧大使로任命하고 駐日公使에는 黃郛派中에서 日本通인殷汝耕을 任命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殷의同意를 求하고잇다

左翼을根絶키爲하야 政府新方策樹立

共黨員에게는 死刑又는禁錮刑
外廓團體도加入者로看做方針
改正되는治維法內容

【東京發電】 昭和三年治安維持法改正以來日本共産主義運動은 地下로드러가潛行運動을繼續하여오든中三一五事件後로多數의 檢束者를내엿슴에도不拘하고依然地下運動을繼續함으로 內務省은이와가튼新情勢에對抗키爲하야 新戰術을適用할必要를看破하고全國的으로調査를嚴重히하기爲하야豫算十五萬圓으로 共産黨專門係警部와警部補約九十名을各府縣警察部에配屬식혀가지고共産黨根絶을目標로다음과가튼 現行治安維持法을根本的으로改正하기로되엿다

現行治安維持法은 國體變革과私有財産否認罪를對立식혓스나 改正法은現存社會情勢를察知하고 私有財産項을全然削除 (此項을削除한다고해도私有財産에關하야 따로法을制定한다는意見도잇다) 하든가 그러치안으면削除는안트라도微溫度文句로채우든가하야 何如든私有財産否認罪는國體變革罪와가티 處斷치안코全然別個로取扱한다는觀念을明確히하고 國體變革을主張하는(共産黨과가튼)것에對하여는 死刑又는無期禁錮의重刑을加한다 現行法은共産黨의 外廓團體에對하야는『目的遂行罪』라고하야 共産黨과 同一하게取扱하지안엇스나 改正法에서는 黨과同樣으로取扱하게되엿다 即全協모플 (救援會)反動全農其他文化聯盟等共産黨과關係잇는 團體에加入한者는 意識的이든가 無意識的이든가를不問하고黨의加入者로認定함 共産主義理論을宣傳하는者도 重罰함 大學講壇에서 共産主義理論을說明하는 敎授도主義宣傳과同一함으로 이點에對하여는 嚴重詳細한規定을設하야今般京大事件과가튼 不祥事를根絶하기로되엿다

教育警察完備를 文部省議서決定

『學生部』를『思想局』으로昇格

最近 左傾運動은漸次로社會各層으로浸潤하야 敎育關係로는大學 高等專門學校學生뿐만안이라 中學校學生 小學校敎員 靑少年에까지 感染함으로將來가매우憂慮됨으로 文部省에서는校內와校外의 左傾運動을防止하고 警戒키爲하야 現在의專門 普通 實業 社會 圖書 宗敎等六局以外에 思想局을新設하기로決定하고 二十五日思想對策 豫算省議에서設置費六萬圓을明年度豫算에計上하야 敎育關係의 左傾運動取締와學生의 思想問題調査를嚴重히하게되엿나 그리고現在學生思想取締를統括하는 文部省學生部는昭和三年에 大學과高等學校學生이 三•一五事件에 關係한데鑑하야 專門學務局으로부터獨立하야新設되엿는데 其後四•一六事件及昭和五 六 七年의各檢擧事件에 多數學生이起訴되엿고 特히 最近各地의小學敎員의 思想事件이續出함으로現在의學生部로는 不充分하다고하야 文部省은學生部를擴充하야思想局으로 昇格식혀學生部學生課及調査課를 그대로思想局學生課及調査課로하고 豫算이成立되면 새로專任事務官一名 書記二名을增員하야敎育思想關係를取締케하기로되엿다

銀協定批准에對한 米大統領態度模糊

最近銀市場은極不安

【電通華盛頓二十八日發】 確實한側의意見은 米國議會는今般經濟會議에서 成立된大銀産國이 年額三千五百萬아운쓰의銀을 市場으로부터 吸收하야銀保有國의賣却銀을相殺할銀價의 安定을 圖함 目的을가잔 九個國銀協定을 批准하게되리라는 意見을抱懷하고잇스나『루즈벨트』大統領은 此에對하야明確한方針을 聲明치안코最近銀市場의不安定은右『루』大統領의態度不明에서 基因되는것이라고云한다

『나치스』政府 反政府紙取締

【電通伯林二十八日發】 獨逸政府는二十七日反政府新聞紙取締를決定하고 一方나치쓰突擊隊는反政府運動의 材料를押收하엿다

米絹業勞働者 同盟罷業

紡織規約適用反對

【聯合紐育二十八日發】 米絹業從業員聯盟은 紡織規約을絹業界에適用하는데對키爲하야七萬의勞働者에對하야 總罷業斷行命令을 發하엿다絹業勞働者의罷業은 이미前週부터各地에蔓延 擴大될徵兆가보임으로絹物製造主側은 二十七日勞働長官『파인쓰』女史에게 調停을懇請하엿는데 이請願書가發送되자 거이同時에勞働者側은突如總罷業을斷行하엿다

滿洲治安段落後 軍制를大改革

滿洲에獨立守備隊增設

【聯合東京二十九日發】 陸軍當局은滿洲治安維持가確定됨을기다려 陸軍全部에亘한軍制大改革을斷行하기로決定하고 近日基礎調査를開始하기로되엿는데 現在의關東軍은事變의進展에伴하여應急的으로出動編成한것임으로 漸次現下의事態에適應하도록再編成할必要에迫到되여잇다 그러나軍制의根本的改革은早急히實現할수업슴으로爲先獨立守備隊의編成代替를斷行하기로되엿다 右는治安維持의根幹이되여잇는鐵道警備의重大性과特히吉會線開通等으로鐵道沿線警備區域의擴大에伴한것으로

一、獨立守備隊를現在以外에第二第三의 守備隊를新設할것
一、實現期는十月一日로함

이것으로獨立守備隊三隊가警備區域을分轄하게된다 더욱陸軍은 第二段의方策으로近日滿洲國內의常駐師團의實現을企圖하고잇다

首腦部와協議次 黃郛廬山向發

北中再動搖防止方針

【電通東京二十九日】 日中停戰協定成立에對한 北中治安은最近全然平靜狀態로 復歸되여非戰地區의 雜軍撤收는着着進行되고잇는데 二十八日北平木山書記官으로부터 外務省에達한報告에依하면 山海關方面의○○○軍은 改編命을밧고 石友三의少部隊는 武裝解除되고二十七日에는 北中全線에亘하야 撤收를終了하엿다 그리고北中政權을掌握한 北中政務整理委員會長黃郛는 北中政情報告와 察哈爾問題處理에 對하야 國民政府首腦部와協議키爲하야 近日廬山으로向하야南下하기로되엿다 더욱黃郛는北中政情에鑑하야 露骨的抗日態度는國民政府에對하야 不利한結果를招來할것으로 國民政府도現在黃郛를首班으로한 對日態度의微溫的인 政權을存續케하는것이 有利하다는旨를極力勸說하리라고 觀測되여잇다 黃郛가國民政府首腦部에對하야 右와如히現狀維持를 主張하는裡面에는宋子文이가近近歸國하게되면國聯其他列國의政治的經濟的援助로再次抗日에着手하야北中의再動搖를齎來할것임으로此를防止키爲하야非戰地區接收를督勵하는同時에 政府와의間에諒解를求키爲함이라고 一般은觀測하고잇다

馮玉祥條件提出 黃郛에게妥協申請

周圍情勢不利하야

【北平發】 中央軍이馮의本居되는張家口의三方面에大軍을配置하고 討馮하는示威를積極으로하고 一方으로는日本軍과滿洲軍이斷乎한決意를 表明하야 四面包圍中에들어서馮은이에恐怖를切實히感하야 그態度가軟化하야 黃郛에게向하야妥協을請求하고 三個條件을아래와갓티提出하엿다

一、抗日軍事에對하야 停止하고今後에는後事를 硏究할方法을 硏究할
二、馮의今番의滿洲人名義(官職)는 問題인것이안이오다만抗日將士의 處分할것을切實히考究할것
三、抗日同盟은決코內戰을企圖하는者가안이나 和平的의折衝을希望한다

北鐵六次交涉 來二日開催

【聯合東京卄七日發】 北鐵交涉은去七月十四日以來停頓形勢가 되엿는데 그間『유레네프』大使과『카즈로후스키』氏와 滿洲國의大橋外交次長間에日本外務當局을仲介로하야여러가지로私的懇談을重하여오든中 何等結論에到達하지못하야八月二日頃第六次正式交涉을開催하야 다시鐵道所有權問題 讓渡價格에對하야論議하기로되엿다

東鄕局長과 蘇聯代表懇談

【電通東京九日發】 蘇聯代表『카즈로후스키』氏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半外務省에 東鄕歐米局長을訪問하고 北鐵交涉에對하야 大橋滿洲國代表와 目下私的會商을거듭하고잇는데 兩國間에意見이 一致되지못하야交涉의前途가 憂慮된다 우리도妥協精神에서 어떤點에잇서서는 讓步할意思도잇스나滿洲國이 依然强硬한意見을主張한다고하면 交涉을中止할수밧게업다 따라日本政府에서具體的促進法을講究하기를希望한다고要望한데對하야 東鄕局長은 交涉이 絶望狀態에陷하엿다고觀察하는것은 時期尙早가안인가 日本은어데까지直接交涉을希望한다 日本이積極的으로斡旋手續을 取할時期도안이라고回答하고 考慮하기를要求하고 午後一時에 會見을終了하엿다

松崎支隊 王軍討伐

【電通奉天二十九日發】 東邊道反軍討伐中이든 春見部隊는連日討伐이奏效하야 反軍은四方으로 解散하엿슴으로 各枝隊는目下反軍掃蕩中인데 東邊道一帶는 數日來의霖雨로河川이氾濫하야 道路는泥濘으로化하엿슴으로 各隊는모도想像以上의困難을當하고잇다 더욱鳳城의松崎支隊는이미王鳳閣軍을擊破하고 二十八日來呈南石湖溝에潛伏하고잇는 反天一軍을討擊하는中이다

廣東派와協力하야 馮玉祥、中央을牽制

何軍은平綏線에配備

…잇스나其實三萬에不過한모양임으로몰아지抵抗하기는매우困難할모양이며 馮은鎖餘의策으로北中各地에散在하는雜軍三十五萬에通敵하고또廣東派와協力하야中央을牽制하야事態의緩和를期하는모양이나雜軍이大勢를察知함으로容易히馮軍에加擔하지안을터임으로馮軍의敗退는依然明瞭하다

齋藤首相 葉山行中止

【電通東京二十九日發】 齋藤首相은事情으로 今日葉山行을 中止하엿다

平田氏發見島를 日本先占方針

佛占島와는別個乎

【電通東京二十九日發】 平田末次氏가大正六年以來先占하여온『파라셀』島는佛國이先占을宣言한『파라셀』島가안인모양이나或은一部가그中의드러슬는지도모르겟다하야海軍에서는三十一日부터本格的調査를開始하기로決定하고萬若平田島가『파라셀』島가아니면日本은即時同島에對하야先占을宣言할手續에나스기로되엿다 또海軍에서는다시同島의先占을하여둘必要가잇다한다

關北經濟風土記【三】

北海道產 明太魚進出로 『北魚』는大打擊!

漁港으로본元山의一面相

貿易港元山을말한以上 漁港元山 乃至元山의漁業을 좀더말하지안을수업다 漁業을말한다면順序는 咸南의水産을槪括的으로먼저叙述하는것이 올홀것이나 元山이야기를하든것이라元山水産物의

◇

『首位』를占하는同時에 咸南水産의高位에잇는明太이야기를 먼저적어보기로하련다

◇

明太魚는 東海岸魚物中에서 그歷史가 가장오래이고 産額도크다 그中에서도 咸南은年魚八十二萬一千圓 가쟁이(鰈) 四十萬二千圓 鯖魚三十二萬九千圓『고망어』十三萬八千圓 海藻十萬三千圓(昭和七年漁獲高)等의 主要水産物中 最高位의一百七十八萬三千圓이라는産額을가지고잇서 咸南魚産에는가장重要視되여잇는것이다 漁獲高에잇서서만안이라 그製造高로보아도 昭和七年에 乾明太가 百二十一萬七千貫에 百三十六萬七千圓 明卵이 五十五萬九千貫에 四十四萬七千圓 肝油가五千七百餘石에 五萬六千八百餘圓合計百八十七萬千餘圓에達한다 그럼으로咸南의

◇

『水産』을말함에明太의 이 또한實點이될것이다 咸南을말하는것

◇

그런데 이漁獲의 大部分은 비로부터 朝鮮人의손으로되여 朝鮮人本位의食饌이되여잇다 山谷狹地에까지 日常食用에勿論 祭床에까지 體面조케볼상은사나우나 번듯이되이는것이다 近年에와서 明太의眞味를가진明州만은 今日東京大阪等地로輸出이되여朝鮮서는좀처럼싼갑스로먹을수업시되여잇스나 如何間明太一名北魚다면賤待는바드면서도널리맥히우는魚物이어서 그漁獲의多寡와品質의優劣은不知不識間어느部分까지는 우리朝鮮人의營養또는商人에게는經濟的影響이업지안타고할것이다

◇

여기에 明太를들어말할에朝鮮人의 營養云云이라고하지는 큰

『看板』을내건다고讀者中에는鼻笑할 사람이잇을런지 몰은다 本文의 論述에는 多少脫線이될런지몰으나 明太의營養素에 對하야 한마듸부처두는것도 크게必要할줄안다 朝鮮에서는咸北明川 人太氏가 처음낙거다먹기始作하야『明太魚』라는稱號를 부첫다는 傳說以後古來로 만히 먹어왓슬뿐 안이라 特히冬期에는病後에 明太국을 먹는風習이잇다 이點에着目한 總督府水産試驗場에서는 明太魚의 營養學的 分析試驗한結果 意外에도 이明太에는人體에 有用한 온갓營養素가 具備하여잇는것을 發見하엿다 그中에서도特히『리진』『트리프토판』『트로신』等『비타민』A와D에富하는것이만허 頭腦와眼의細胞成長에는 무엇보다도조타는것이다 그래서明太魚肝油라면 어느

『肝油』보다도品質이良好하기로 첫손을꼽고 効力은補養에가장조타는것이다 水産關係者는東海岸魚産中 營養價가第一만흔魚物로明太를꼽는만큼 明太魚와朝鮮人의營養과는歷史的因緣이크다고 그方面사람들은正色하야主張하는바이다

◇

이와가티 우리補養에重大한關係를가진 明太魚漁獲에重大한異狀이생기엇다 이것은咸南의 一般的漁業者에關한問題로昨日에도 習聞말한바잇섯거니와近年價格이低落하여진터에魚體가矮小하여간다는것과또그反面에 咸鏡海岸의特産으로만알고잇섯든것이 近年에는日本北海道方面에서 만히잡히어朝鮮明太가 商品으로서餘地업시壓迫을 밧고잇다는것이다 이것은 咸南을中心으로한東海岸漁業者에게 重大한問題이다 그러고漁獲量도年別로差는잇스나 그

『大體』로보아 遞減되는傾向이 보인다는말도 水産當局者에게듯엇다

◇

이제北海道明太의 移入狀況을보면 昭和二年에七十萬圓 同三年에百萬圓 同四年에百十四萬圓 그後도百萬圓을不下하는巨額의것이 釜山、元山、淸津等의諸港으로朝鮮製品이나갈도달음이업는包裝을 하야가지고들어온다는것이다 이에對하야 數年來로各道當局에서도 朝鮮의漁業을保護하지 안을수업서그移入防止策을 講究中이나아직은 別로神通한方法이업서苦心中이라한다 그러면大體 朝鮮明太가 와北海道로건너갓는가? 그理由는 關東大震災後海底에 變化가생기여

『潮流』에도變化가잇서 魚群도 녯故鄕의 길을못찻고 北海道沿岸으로가게되엿것이 아닌가하는觀測이有力하다 그러나 이것도學的根據가잇는 定說은못된다 이런現狀에잇서 明太漁業에雜色이뒤우고잇다 【洪鍾仁記】

時事漫畫 日貨의世界的受難

爲替安이란光線으로非常한繁殖力을가지고 海外市場으로發展한日本商品에못견된 世界各國最近엔一齊히 日本品伐去作業으로야단! …… 金華書

大藏省查定方針에 外務省은不滿

外相이政治的折衝?

【電通東京二十九日發】 外務省에서는明年度豫算案에對하야 國際聯盟脫退後의 政治及經濟的自主外交의 充實을目的하고 積極的方針에基하야 埃及、『아프카니스탄』『아비시니아』『콜롬비아』 四國에公使館新設을筆頭로國際文化局、滿蒙局等의新設其他今後外交的 發展에必要한新規事業을 計劃하고過般來로商議를 거듭하야大體項目은整理를終了하엿슴으로 來三十一日內田外相을 筆頭로重光次官以下各首腦部가 出席하야明年度豫算案確立의最終省議를開催하기로되엿다 最近大藏省當局은明年度 豫算案查定에對하야 『軍事費를 除한各省의明年度豫算은本年度豫算程度로查定하고 新規事業은各省에서代身하야財源을 提出치안는限承認치안는다』는方針을明示하엿슴으로 外務省은不當하다고하야 內田外相의 決意를促하야政治的折衝을開始하기를 要望하기로되엿다

國民武裝 中央政府指導로

自衛團에積極參加

【南京發電】 最近中央政府는外敵을防止하고 內亂을防過한다는名目으로 國民武裝을實現하라고傳한다 그實施形式은前에잇든 保衛團의名稱으로例컨데縣保衛團은 縣長이指導하는것으로 人民의自由이라고稱하여도 實質에잇서서는 直接政府의指導를바듬으로 國家行政의一部가에잇다 都市의人民自衛團에는 國民黨黨部가指導하게되엿고 그指導者는縣政府의行政長官이 當키로되여잇다

鐵相八月五日 藏相訪問豫定

【電通東京二十九日發】 閣議豫算編成方針에對하야多少相異한意見을가진 三土鐵相은八月五日葉山에잇는 高橋藏相을訪問하고 懇談할터인데이에明年度豫算編成大綱이 決定될것으로注目된다

濛江、撫松兩縣 警察隊로改編

【電通奉天卄九日發】 靖安軍은二十六日來濛江 撫松兩縣下의匪賊團을掃蕩하고 잇는데兩縣警察隊에는 匪賊出身이多數混入되여素質이不良하다는事實이判明되여 二十八日은濛江縣警察隊를改編하고 繼續하야撫松縣警察隊를改編할터이다

明年度陸軍豫算 五億五千萬圓

陸軍省議서大略決定

【聯合東京二十九日發】 昭和九年度陸軍豫算案은二十九日의 陸軍省議에서大體決定되엿는데 來三十一日이나八月一日大藏省에提出하기로되엿다 總額은五億四五千萬圓의巨額이다

英國領各地의 日本品排斥激化

南阿形勢가極히險惡化

【電通東京二十九日發】 英領各地의 日本品排斥은最近에와서激化하게되엿는데 南阿聯邦에서도全面的으로 日本品에對하야差別待遇를行하게되엿다 即在『케입타운』重垣領事代理로부터 二十九日外務省에到達한報告에依하면『케입타운』商業會議所는『요하네쓰벅』聯合商會議所와가치 日本品排斥運動에着手하고聯邦政府에對하야 陳情하기로된바 同商業會議所會頭는『英國을비롯하여 歐洲諸國의指導下에 國際的으로日貨排斥을斷行하자』고 發表하엿다

對滿投資調查會 日佛共同開催

佛國投資는卄億圓程度

【聯合東京二十九日發】 滿洲國에對한佛國으로부터의 投資는이미오래동안 折衝中이든바 佛國의가장 有力한事業指導團인 佛國海外發展協會代表『드리비에』氏의來朝로具體化되야 日佛共同對滿投資調査會가設立되게되여 同氏를爲始하야貴族院議員藤村義朗男、曾我祐邦子其他財界有力者를投資者로하야二十九日正午東京會館에서 創立總會를開催하엿든바 이結果『드리비에』氏는 不遠渡東하야 投資할有望事業을調査하기로되엿다 그리고佛國에서投資할수잇는金額은 百億法(約二十億圓)豫想으로純然한民間投資에依하는것이다

日滿軍急追로 田英軍四散

【電通奉天二十九日發】 討伐軍의追擊에逃走를繼續하든 田英軍約四百名은 二十七日午前鐵嶺東方二十料를隔한城廠溝로逃入하엿는데 日滿軍의急追에四散潰滅하엿다 討伐部隊는더욱殘兵掃蕩에努力하고잇는데 反滿軍은 赤布에白丸을附하고抗日義勇軍이라고記한腕章을달엇는데 軍力은乘馬隊二百名徒步隊約二百名으로 其中에는副官이라고稱하는赤露人六名과婦女子四名이混入되여잇다 兵士는五十歲로부터十六、七歲까지로服裝은統一되지못하엿다

人事・集會

▲山本悌雄氏(日本商業通信副社長) 大連及新京에서開催하는日本新聞協會大會에出席次三十日夜出發北行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一二三〇	(四〇低)
鐘新	一〇九五〇	(八〇低)
日產	八三四〇	(六〇低)
東新	一九一三〇	(一〇〇低)

日曜夕刊休刊

前例에依하야七月三十日은休日임으로夕刊을 發行치안이하옵니다

朝鮮日報社

瞬息間에 全邑呑盡

急亂中에 乞人群의 暴害

潭陽浸水當時情景

潭陽에서 特派員 申敬淳 發電

이번전라남도 수해중 가장심한곳은 담양(潭陽)이다 담양읍내는 이십오일 오후륙시부터 퍼붓는도시 나리는 비로인하야 이십칠일 새벽일곱시경에 읍내뒤에잇는 담양천이 범람하는동시에 오백년의 력사가잇다고하는 관방제(官防堤)가 터저서 무서운 탁류는 읍내구백호중팔백호를 침수식히고 말앗다 그동안은 겨우반시간밧게 아니되야 주민들은 눈코뜰사이도업시 가장귀중품을 둘아볼여가도업시 자리옷입은채로 보통학교로 피난하엿다 시장에서는 우육판매점헛간에서 잠을자는 걸인수십명은 피난할길을잃고 허둥지둥하다가 그만무참히 탁류중에빠저죽엇다고한다 그중에 장청산사명이 겨우집웅우으로 기어올나가서 사람을살니라고 소리를쳣스나 구조의손도밋처 이르지못하야 필경은 탁류와한께흘너갓다한다 그뿐아니라 그들은빈청한주거가업는룸펜인 까닭에 몃명이죽엇는지 조사할 도리조차업다 그러나 보통때에 읍내에 돌아다니는 걸인의수효는백명이상에 달하엿섯는데 이번수재이래로 걸인의 행색은 보기가듬은것을 보면 가련한그들은 전부물에 희생되지나아니하엿는가추측된다 (二十九日發)

▲災民二三〇人▲死者五人▲家屋被害=家屋流失三戶 全潰三三戶 浸水一三三戶▲田畓=埋沒 八丁四反 流失四丁浸水八〇〇町步 ▲田=埋沒一丁四反 流失三町八反浸水三〇〇町步 ▲道路被害=流失九五메―돌 決潰三三메―돌 斷橋一三〇메―돌

住居업는彷徨者 百戶、四百餘名

面所의救護도一段中止하야 親知차저依托코저

이곳은 비가개이고 날이들엇스나 하늘에는검은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이따금이따금 소낙비조차 오므로 재차 큰비가온다고하면 또물난리가 나리라하야주민은 전전긍긍하는중이다 피란민은 면사무소에서 도지방비(道地方費)로 밥을지어내어 구조하엿스나 지금은이를 중지하고 다각각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엿다 그중에도 집을일코거접할곳이업는사람이 백호 사백여명에 달하는모양인데 이들은 모다친척을찻저서 위선몸을 의탁하게 되엿다

二十五戶 一村全滅

다섯명이익사

광주읍내에서는송정면(松汀面)의 피해가제일심하다 송정면신촌리(新村里)야촌(野村)은 이십호전촌이 물에휩쓸려서 주민오명이 빠저죽엇다 그우에전주민은 홍수에포위되야 사람살리라고 고함을지르고잇는것을 배를타고드러가서 근근히 구조해내엿다한다 이지방은극락강(極樂江)과황룡강(黃龍江)의 물이합류되는곳이며 또한 송정수리조합(松汀水利組合)의 제방이 완전치못한탓으로 피해가더만핫다는데 이사실은 전라남도보안과장도 인정하얏다

하엿다하며 송정리지방의 금번 피해상황은다음과갓다고한다

水災民에 食事를提供

【松汀里】 전남송정리최남규(崔南奎)씨는 수란이 지나간후 먹을것이업서 기아에울고잇는 송정면신촌리구내(松汀面新村里區內)의야업이일대의 재민삼십구호 약백 오십명에게 밥을지어 이일간이나 먹여오며 또죽은사람의 장사도치루어 주엇다 넉넉치못한살님에 씨의특지에 일반은 감사함을마지안이한다고한다

浸水二千餘戶

死亡判明은二十四名

二十九日午前十時全南水害統計

이십구일오전열시까지 전라남도보안과(保安課)에보고된 수해피해는

	死亡	負傷	行方不明	流失家屋	家屋全潰	家屋半潰
▲光州	一二	〇	五	一九	一一六	七八
▲潭陽	八	一三	七	九五	一七四	一二九
▲求禮	一	〇	〇	〇	一	一
▲咸平	二	〇	〇	〇	〇	〇
▲谷城	一	〇	一	〇	〇	〇
▲羅州	〇	〇	〇	三	五一	四六
▲長城	〇	〇	〇	八	〇	五
計	二四	一三	一三	一二五	三四二	二五九

이外 기타침수가옥은 이천이백이십호에 달하얏다 그러고 또영산포(榮山浦)에서는물이빠저서별로히 큰피해는 업다한다

被害田畓만 千二百町步

松汀里附近水災後聞

【松汀】 긔보=호남선송정리(新南興松汀里)지방일대는근래 희유한수재로 인하야 이재민 ... 번호는부보하엿지마는 ...

구조대(靑年救助隊)의민활한활동에의하야위친의식주를 모조리일본재민 필명만을 빼주하 ...

漢江水位廿二尺五寸

二十九日午後十一時現在

上流의暴雨로 今朝까지增水

被害의憂慮는업다

한강상류인 가평(加平)압 한강의 수위는 이십구일오후세시에 오미돌구십구(五、九九)를최고로 이십구일밤 아홉시에는오미돌칠십칠(五、七七)로 점차감수되는모양인데 그물이 약염두시간만이면서울인도교(人道橋)까지 닥치게됨으로 삼십일새벽다섯시에는 칠미돌 오십(七、五〇)이될모양이다 그러나상류에서 비가오지만안으면 별로히념려될것이업스며 또한강의 경계를요하는 표준수위는 구미돌임으로 아즉물이 좀붓는다하드래도 그다지놀랠 정도는아니라한다 그러고또 서울의비가오는데 따라서 붓게되는룡산욱천(旭川)은 이십구일 오후여덜시에 륙미돌삼십오(六、三五)이엇든것이 동일밤열시에는 륙미돌오십사로 증수되엿다 이것은 이십구일밤 잠간동안갑작이퍼분 폭우로말미암아 부른것인듯하다 이번비로말미암아 경성을중심으로하야 각군부에 래왕하는 교통에지장이 만타

楊州郡下 浸水卅戶

경긔도양주군상봉리(楊州郡上鳳里)의춘천가도는갈우에석자나침수되야 교통이 전연두절되엿스며 또동군마석우리(磨石隅里)는하천이창일하야인가이십칠호가 침수되엿고 춘천가도의 마치교(磨峙橋)는와괴되야류실되여버렷다

坡州郡內水害 浸水百餘戶

경긔도 파주군조리면 봉일천리(坡州郡條里面奉日川里)에서는 이십구일 오전여덜시에 그동리압해잇는곡릉천(曲陵川)물이넘치어 마루우두자이상이나 침수된가옥이 일백구호나되고 피란민오백명은 당지보통학교에수용하고 파주군청과 파주경찰서와 소방대에서 협력하야주먹밥을 지어서 구호를하고 잇다한다

京義線開通

이십구일오후

경의선일산금촌간(一山金村間)의선로가 수해로상하야 렬차가 불통중이라함은 석간긔보와 갓거니와 철도국에서는 복구공사에로력한결과 이십구일 오후부터 개통되야 밤에경성을떠나는 북행렬차는 모다 정각대로떠나게되얏고 기타각선에도 아모이상이업다고한다

府民館基地

太平通으로決定

긔독청년회관터

경성전긔회사의 기부금중 오십만원으로 건설하리라하는 경성부민관(府民館)계획은 방금부당국에서 착착 준비중이라는데 기지는 대체태평통에잇는 일본긔독교청년회관 기지 일천이백여평을 매수하기로결정하고 긔넌회의 이전할자리가 결정되기를 기다려 곳설게에착수하기로되엿다한다

西北은晴曇不定 中部는曇小雨

昨午後六時仁川觀測所觀測

漸次로晴快할貌樣

【仁川觀測所發表 二十九日午後六時現在觀測】 팔백륙십이미리의고긔압(高氣壓)은일본동남해안에주심을 두고그세력은 일본구주(九洲)방면으로 일본해와 조선해협을 지나 조선남방에까지미쳣고 또몽고(蒙古)에도 칠백륙십일미리의고긔압이 잇다 두고긔압 중간에들어 잇는반도는 이흐리며 구즌비가 다소나리든곳도 하나 대체로 보아천후는점차조와질터이다 그리고대륙 선풍(大陸旋風)은 오호츠크해에서다시 동북으로 진행중이며 중국남방향항(香港)근해에나타난 태풍(颱風)은서북으로 진행중이다 반도를중심한천후는 남만주는쾌청하고 조선도쾌청 동해안은흐렸고 중부지방은 소낙비가왓고 남조선은흐리기는하나 비는 거든터이엇다 삼십일의 천후는북부와 서부조선은흐렷다 맑엇다하고 중부조선과 일본해안은날정하다

各地天候狀況

中江鎭曇 新義州晴 平壤曇 仁川曇 京城曇 全州曇 木浦曇 濟州晴 雄基曇 城津小雨 元山小雨 江陵曇 大邱曇 釜山曇 下關晴 東京曇 天津晴 新京晴 奉天晴 營口晴 大連晴

린듸機消息

【電通코펜하―겐二十八日發】 영국시간 이십오일오후 여덜시반『그린랜드』의『홀스타인』에도착한북극권(北極圈)횡단의『린드벅』대좌는 이십팔일오전『카나다』서북편『바휜』도(島)로향하얏다

情婦의 金屬物窃取

지난십오일 오후게시경에 시내관훈동(寬勳洞)한정희(韓貞姬)방에서 반지를비롯하야 가격약백원가량의 귀금속품을 도난당한일이잇섯든바 그것은 시내모인쇄소직공 박태오(朴泰五)(假名)의소행으로 관명되엿는데 전긔박태오는 한정희와 애정관계가잇서서 아래서귀여오든바 이십오일저녁에도 한정희의 집에서 자고나오는길에 그러한범죄를한것이라하며 박태오는 절취한물건을 처분하려고 고긔질옥(高崎質屋)압에서배회하는것을 종로서원이 검거한바 다른죄나 업지안은가하야 엄밀히 취조하는중이다

群山運送人夫 四十名盟罷

마루보시지점의수차인부

雇主側에서는拒絕

【群山】 지난이십오일부터조선운송주식회사 환성군산지점(朝鮮運送株式會社丸星支店)수차부(手車部) 로동자 사십여명이 대우를개선하여주며 임금을 인상하여달라고 동맹파업을 시작하엿다 지난이십칠일부터 돌연히 군산경찰서 고등게에서는 검거에착수하야 벌서 사오인을검거하엿다 회사측에서는 아예대하야 조금도 응할수업다고하면 로동자들의요구를 거절하고 따로이로동자를 채용하겟다고 말하고잇다 금후여하히진전될는지주목된다

爆發物爆發 人夫一名重傷

【蔚山】 경남울산청량면덕하리(蔚山郡青良面德下里)철도공사장에서는 지난이십일일 오후이시경에 본적을경북김천(慶北金泉)에둔 박긔준(朴起俊)(二三)이란인부는 『다이나마이트』폭발로인하야 중상을입고 생명이 위독하다는바 그는『다이나마이트』의 발파재(灰)로서 다리의 종긔를 곳친다는말을듯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아즉폭발되지안흔것을 한개어더서 불에태울아다가 그와가치 되엿다라하며 요행히 생명을구한다하드래도 불구자는면치못하리라고한다

店主小切手 窃取햇든店員

필경경찰신세

시내종로 오정목 이백삼십오번디류창훈(劉昌壎)상점에점원으로잇든 류원상(劉元相)(一八)은 지난십사일주인그상점의책상우에 노여잇는 상점주인명의의상업은행 소절수액면 이백팔십륙원자리와 인감을 내다가현금과 밧군후 종적을감추고 잇든바 이십구일그동무진종홍(陳鍾洪)외 두명과 가티만주로 도주하려다가 경찰에붓들리여 방금동대문서에서 취조중이다

可恐할祝融作亂

昨年中에火災가四千三百回

每日平均六千餘圓의被害額

昨年中全道火災統計

총독부문서과(文書課)조사에의하면 소화칠년중의 화재건수는 사천삼백삼건으로 전년에비하야 백구십팔건이 감소되엿스며 그손해총액은 이백이십삼만 구천오백팔십칠원으로 전년에비하야 백칠십삼만삼천륙백 이십삼원이 감소되엿스며 화재에의한 사자는 칠십팔명 부상자이백이십삼명 기타가축아홉마리가 타죽엇는데 그원인을보면아래갓다

△溫突不注意 一、五二八件
△우궁이不注意 四二六件
△殘灰不注意 三八〇件
△아이들弄火 三四四件
△放火 三〇二件
△其他失火 三、七七〇件
△原因不明 二二三件

그리고 동년중의화재는 매일평균십이삼건이고 손해는 매일평균륙천사백원이다

平洞에城壁이崩潰

家屋이一棟破壞

人命의被害는업서

이십구일오후여섯시삼십분경시내평동(平洞)이번지의이호압흡히이십척에 폭십간이 되는성벽이 큰소리를 내이며 문어저 그밋테잇든 민병주(閔丙珠)의 집이문허젓다 요행인명의사상은업섯다

行方不明中의漁船 廿四隻全部歸還

平南漢川漁業組合所屬漁船

家族들은歡喜雀躍

【平壤支局電話】 서해안일대를엄습한 폭풍으로 행방불명되엿든 한천어업조합(漢川漁業組合)소속어선이십사척중 륙척이 이십팔일 까지에도라오고 그남어지는 역시행방을 모르고잇든바 이십구일에 이르러 남어지십팔척도 한천항에도라와 거이모다죽엇스리라고 단념하고 잇든 가족들은 깃붐에날뛰고잇다

遭難漁船搜査로 飛行機二臺出動

【平壤支局電話】 서조선일대의 어선삼백척 행방불명으로비행제육련대의 정찰비행기 두대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하야 삼십일오전중에 평양비행장을 출발하야 재란지 방면으로출동하리로 결정하엿다

運動競技

徽文籠球部 開城遠征

徽文高普籠球部에서는 이번夏期休暇를利用하야南鮮地方으로遠征을豫定이엇스나 嶺南水災其他事情으로方向을轉換하야開城으로 遠征케되여 코―취安台慶氏引率下에三十日午前八時出發하기로되엿는데 試合日程은다음과갓다

▲七月卅一日 對沙現籠球團
▲八月一日 對松都高普軍
▲八月二日 對全開城軍

第二高普水泳部 元山에서猛練習

第二高等普通學校水泳部員一行은同部코―취金泰植氏의指導로 連日猛練習을하든中지난二十五日五哩遠泳을試하야 다음의十三名이成功하엿다한다

▲李熙鍾 金鍾河 李洛昇 金鍊 俞秉濬 姜準 金基台 吳振榮 李友喆 俞技榮 方炫 金壁植 南相郁 仁鍊
▲金仁根 姚鋼淳 朴文羲 (以上俱泳三名)

極東오림픽 明年六月로延期

【聯合마니라廿九日發】 極東오림픽理事會는 廿九日會合에서 次回馬尼羅大會의開催其他에對하야協議한結果 日本側의要求를容認하야 大會期日을明年六月九日부터 十七日까지로變更하기로 正式으로決定하고 또 從來의綜合選手權制를改訂하야 各이벤트마다選手權을賦與하는制度를 採用키로決定하얏다 그리고中立國審判員採用案은否決되얏다

夜間野球는邪道

◇識者間에非難이漸高◇

【電通東京二十九日發】 日本에서 唯一한夜間野球場인戶塚球場은 지난十日開場以後野球팬들을놀내이게하엿스나 日間六大學俱樂部野球戰을 夜間野球場에서 開幕케됨에一般팬들은 夜間野球의不自然을말하게되엿다한다 그理由는選手가晝間보다 二倍의疲勞를밧게하며 더욱陰影을가진捕球 錯角으로오는失策가튼것은 選手의視力을傷케한다는것으로 識者間에 非難이놉다

코―쉐惜敗 英國優勝의機到來

【聯合오―도이유廿八日發】 今年度데뷔杯優勝權의 爭奪을決할데뷔杯保持國佛蘭西對인터―존決勝에 米歐를이긴英國과의最後決戰單式試合은 今日當地에서擧行한바英國二勝하엿다 이리하야英國優勝의機도 머지안엇다

오스틴(英) 6―3 6―4 6―0 메루란(佛)
페리―(英) 8―10 6―4 8―6 3―6 6―1 코―쉐(佛)

今日의運動

▲日比職業拳鬪戰은 午後七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擧行
▲中等野球朝鮮豫選抽籤結果 善隣―釜商(一時) 平中―木浦商工(四時)

日曜講話

▲勝洞敎會(午前十一時) 주의발자최 金春培
午後八時半 (未定)
▲貞洞敎會(午前十一時) 심는대로거두리라 李正鎬
午後八時半 (未定) 梁朋煥
▲向上會館(午後八時) 修養의極致 金仁湜 李智光
▲南大門外禮拜堂(午前十一時) 예수의社會罪惡觀 金英珠
午後八時半 無力한信仰에對한警

咸北再建共產黨 豫審決定書全文 (三)

朝鮮에서××××產制度를否認하고 ××××社會를建設하는것을目的으로하고 朝鮮共產黨再建設咸北準備委員會를組織하고『오르그』同被告人 宣傳部主湘翼 青年部鄭治善 徐承元과 各部署를決定하고 再來右委員會의擴大强化에努力하여왓는바 昭和六年十二月初頭頃 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와 連絡하여 ××主義運動에關한聯近의趨勢를加하고 또成鏡北道內에對한××主義運動의 狀勢를報告할目的으로『오라』方面으로부터 入露하엿스나 途中『바라바수』에서 露國『게―빼우』에게逮捕되고 其目的을達치못하고再次歸還하엿다

(六) 被告人朴鳳憲、文基煥은 徐承元、金鳳烈과 共히昭和七年 四月十二日頃 夜雄基邑上松峴坂竹業方에 集合하여 朝鮮을 ××××으로부터 離脫식히고 朝鮮에서××××制度를否認하고××××社會를 建設할目的으로써××主義青年地方協議會를組織하고 都市產業部責任者朴鳳憲 農村部責任者文基煥 街頭部責任者金鳳烈으로定하고 同會의擴大强化에努力하엿다

第二

(一) 被告人尹炳權은 昭和三年三月에 鏡城公立高等普通學校를卒業하고 暫時成鏡北道山林課雇員의 職에在하엿스나 昭和四年九月中 遊學目的으로서東京에 赴하야 私立日本大學專門部經濟科를專攻하고 其間新宿職業紹介所의手를 通하여東京市街路掃除人夫等이되여筋肉勞動에 從事한일이有하고 其時로부터 唯物史觀、資本論等을 耽讀하여××主義에關한書籍을 耽讀하고漸次此에共鳴하기에 至하엿든바 昭和六年四月中病으로 休學歸省하고 再來北里에서小額의資本을 가지고米穀商을경영하여오든바 昭和七年一月十四日鏡城郡梧村面勝岩洞安松鶴及許利福과 會合共히朝鮮을 ××××로부터 離脫식히고 朝鮮에서 ××××制度를否認하고 ××主義社會를 建設할것을目的하고 協議會를 組織하고 當面의事業으로鏡城과其附近에對한 中等學校生徒及青年을指導하야 ××主義者를맨들기爲하야 各處에讀書會又난硏究會를만드러 社會科學에關한 攻究를하게하고 學校方面責任者安松鶴 街頭方面責任者許利福을 各部署를定하고 其後各學校에 讀書會를組織케하고 被告人安松鶴은地方青年을 讀書會를組織케하고 其後被告人尹炳權 洪鍾成은右讀書會의 硏究會員과鏡城郡梧村面南文洞方面의青年等에게 ××主義思想宣傳口演을하고 各各 努力하엿다

(二) 被告人朴東爀은 昭和七年四月二十日頃鏡城郡梧村面에서 被告人尹柄權의勸誘에 依하야右協議會의目的을知하고 此에加入함

(三) 被告人尹柄權은昭和七年四月初旬頃鏡城郡梧村面勝岩洞七十七番地被告人住宅에서被告人成亨洙 金會男에對하야鏡城邑內에 對한音樂 文藝 演劇 繪畫等의同好者中으로부터意識分子를 糾合하여赤色藝術同盟을 組織하고『푸로레타리아』藝術을 通하야 ××主義運動을 할여고 指導慫慂한結果 同被告人等도 此에 贊成하고 其方法時期等에 關하야서로 意見을 交換한後 被告人成亨洙、金會男은 다시同月中旬頃鏡城郡梧村面勝岩洞 被告人金炳五方에서 右同被告의指導를受하고잇는金炳五와共히 具體的으로此에關한 意見을交換하고 同年五月末頃 右赤色藝術同盟을組織하고 其創立大會를 開催할 決議를하고 右被告人等은朝鮮을××××으로부터 離脫시키고 朝鮮에서×××× 制度를否認하고××社會를 實現할것을目的하고 其目的的實行에關하야 協議하엿스나 其後未久에 檢擧된바 右結社組織의 目的을達치못하엿다

自働車와自轉車

두곳서에충돌

이십팔일오후네시오십분경광화문대로에서 운전수신정목(申正木)(二五)이 차를 운전하야 황금정방면으로향하야 동사헌정 십자길을 돌라고 질주하여오든 신정삼십륙번지거주리달봉(李達鳳)(三二)과측면으로충돌되야 리달봉은 전치이주일간의 상처를받엇다한다

◇

동일오후 열한시반경 부내수창동일백이십번지『라이온』택시운전수 홍찬용(洪燦◇)(二〇)의 운전으로 장곡천정으로부터 욕정방면을향하야 달리든중 삼월(三越)압흘동과할지음 옥정일정목일백구십이번지장곡천(長谷川)의집에 배달부로잇는리복영(李福榮)(二五)의 자전차와 측면으로 충돌하야 리복영은왼편억개가 불어져 전치삼주일간의상처를바덧다고한다

朝鮮劇場

七月二十九日밤부터三日間 廿九日●三十日兩日晝夜二回
料金 大衆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廿錢 小人十錢
納凉週間(第四週)
朴銀波案 人情劇 恩惠 全二幕
幕間 싸쓰밴드演奏 獨唱(裵点鈴、劉桂仙、金峯子)
安海影案 異國哀話 馬賊의딸 全一幕
宋海天作 喜劇 二人假死 全三幕
次週=李青海作 時代劇 波濤 全二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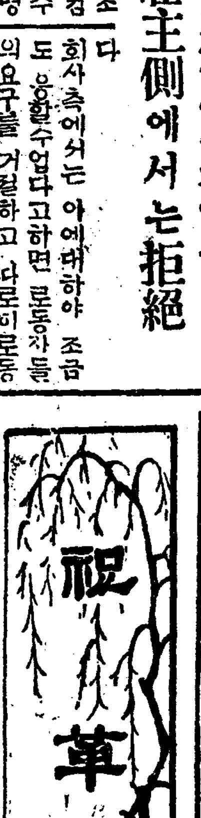
第一劇場

七月廿八日낫부터 時間 낫一時 밤八時十五分
入場料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메드로社特作品 大喜劇 잡부리의스카―트 全七卷 시드니잡부린氏主演
夏節에한번시원스러히웃는것도 서늘하게마음을도읍는수잇습니다 마음것우서보시라
와―나社特作品 大活劇 白牙의피뭇더 全七卷 名犬린틴틴主演
용감스러히活躍하는名犬이야말로人間以上에무슨힘이잇습죄도하다찰롱패헌映畫올시다
幕間 本館獨特한音樂 스도로핸드五人뽀이 尹白丹孃 出演 梨園界의名花 (여러분의)

中西テント
京城驛前 中西テント 電話本局二八四八番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職業
遠近男女自宅에서되는永久有利特許應用의見本進呈 福榮社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祝榮州朝鮮日報支局設置
榮州郡安完面新田洞 龍鳳金銀鑛業所 代表 金在圭



開城
開城電氣株式會社 社長 金正浩
開城南本町 韓內科醫院 院長 韓喆鎬
開城北本町 孔聖學
開城電氣株式會社
開城北本町 開城蔘業組合
開城南本町 順天醫院
開城北本町 東亞旅館
開城府廳
無名氏
開城南本町 松都殖產株式會社
開城大和町 開城石油販賣組合
開城大和町 同興泰
開城南本町 朴尙玉
開城東本町 李熙英
開城池町 崔仁鏞
開城南本町 開城種苗場
開城東本町 韓明錫
開城大和町 沈基澤
開城製油商會 朴萬熙
開城南本町 太陽寫眞館
開城南本町 金基俊
開城大和町 高橋達太郎

日曜特輯 朝鮮演劇

朝鮮新劇

二十五年略史(一)
圓覺社以後 新劇座解散까지
孫煒斌

◇朝鮮에잇서서의 新劇의濫觴은 一九〇九年에잇서 當時에 國立劇場이라고도할『圓覺社』에서 李人稙氏가新劇으로서『雪中梅』라는것을 舞臺에올린것으로부터인데 이것을爲始하야 一九一一年에는 林聖九 金陶山 林容九 金小浪氏等이『革新團』이라는것을 組織하여가지고 南大門外에서興行을하다가 圓成社에서繼續興行을하엿다 그때에上演한劇은 모도가『義兄의殺害』니『六穴砲强盜』니하는때위의『新派』이엇다

◇그리고 一九一三年에는 尹白南氏가 日本留學의 길에서 歸國하야『圓覺社』를引受하고『文秀座』란것을 組織하야 日本文豪의德富의『不如歸』와『長恨夢』等을 上演하야서在來의新派劇에比하야 多少進展性을보혀주엇스며 李基世氏는『唯一團』이란일홈으로서『演興社』에서 興行을하엿다 其外에도『醒花團』이니『鮮美團』이니하는 地方巡廻를爲主하는 群小劇團體가잇섯스나 不過一二次의興行으로서 潰滅되엇스며그래도『革新團』『文秀座』『唯一團』이當時에잇서 가장代表的劇團이엇섯다

◇그때는 勿論朝鮮에잇서 처음으로 新劇이 一般에게流布되기始作하는때엿슴으로 男女老少할것업시 新派演劇이란일흠만들어도 興味를 늣기며劇團이地方에巡廻하면 으레히朝鮮古代의 戰帽軍服을着用하고『새납』을불고 長鼓와『커금』을치면서 요란스러히 街頭로다니며 宣傳을하되街路의交叉點마다 一場說明을하여 一般의마음을 솔깃하게만들엇다 그리고 上演하는 新派演劇에는朝鮮在來의 舊劇中의『줄타기』『곡마타기』도加味하고『奇術』『妖術』等도 보혀주는것이 大部分이엇다

◇이리하야 그後에(文秀座)와『唯一團』은 合同되여(藝星座)를組織하고 古代小說『雙玉淚』를演劇化하엿고 『톨스토이』의『復活』과日本劇의『燈臺守』等으로演劇의새로운一面을엿보게하야 적지안이人氣를끌엇섯스나 드되어組織된지얼마안되여 解散하고말엇다 그리고 李基世氏가다시『文藝座』를組織하엿고 金陶山氏는『新劇座』를一九一七年에金小浪氏는『聚星座』를 各各組織하야『革新座』에서完全히分離하여서獨自的으로興行을始作하여 林聖九 林容九 金陶山 金小浪等諸氏는 各新劇團의重鎭으로 互相鼎立狀態에서隱然中 對立的形勢를 取하고잇섯든것이다

◇그리하야 이모든劇團은中央公演으로부터 地方巡廻의 型에박은듯한運命에서 放浪生活을 繼續하게되엇스며『文藝劇團』은地方巡廻興行後에 解散되고말엇다 그러고 全般的傾向으로 그때의朝鮮에輸入되든映畵에 影響을바든바잇서連鎖劇이 一般의注目의焦點으로人氣를끌엇는데 連鎖劇上演은實로金陶山氏로서 嚆矢라고할것이다 그러든中 一九二一年에林聖九氏의死去와함께(革新團)의그림자도 사라젓고 一九二二年에 金陶山氏亦是高麗에서 連鎖劇으로撮影하든中失脚하여 墮落된것이原因으로 非運의別世를하게되자『新劇座』도드되어四散하고말엇다

△牡丹燈記의舞臺面 ＝(新興劇場)

女優漫談
申不出

◇劇界란 朝鮮의劇界를 가르침은勿論이요 그러타고 劇界全幅에 亘하야 論及하려는것도아니고 오즉 女俳優이야기를 비롯해서 어느모렝이를들쳐거려볼 作定이다

◇『朝鮮의女俳優는『카페ー』에가서 차저라!』어떤실업슨사람이 떠드러노흔 이한마듸말을 나는 심상하게 듯지를못햇거니와 요새가치 女俳優들이 貴한때는 정말듯긴다

李月華는 얼마前에 門司에서 죽엇다는所聞이들니고 卜惠淑은 그늘에서 춤추는사람이되고 李愛利秀는 살님들드러가서 杜門不出하는지가 오래고 李景雪은 身病으로 龍非가서 治療中이요 申銀鳳은 圓成社舞臺를 밟는한편 自動車運轉을 배운다고한다 全玉은 上海가서잇고 金仙草 羅品心 姜石燕 金蓮實은『레코ー드』吹込에 발분모양이라는데『레코ー드』吹込말이 낫스니도말이지만 道間에 申一仙이上京하자마자 엇던『레코ー드』會社와 吹込契約을햇다고 들린다

죽은 사람은 죽엇거니와또 알는사람은 알코잇거니와 다른事情으로 舞台를떠난 그네들은 바라노니 이舞臺만 朝鮮舞臺를 永遠히 버리지안흘줄을 구지밋고십다

◇現在朝鮮劇團에잇는 女俳優의 數爻가 무릇兩百을 지나거니와 이제 이紙面을通하야 一一히 紹介할 餘裕를 갓지못하엿슴으로 遺憾으로생각하나 그것은 後際에풀기로하고 爲先 이原稿를草하는지금 京城市內에서 開演中인 新舞臺와 喜樂座에잇는 女俳優들만 하드라도 新舞臺의 崔仙이와 가튼 女俳優는 先進女俳優의 技藝를 凌駕할만한 늠나운才操를 볼수가잇고 高漢女의貴여운演技라든지 喜樂座의 劉一淳가튼 女俳優는 失手업시 무게잇게나가는 非凡한素材를 칭찬아니할수업고 金湖都是의 出衆한演技 또 그外에도 멧멧女俳優 ― 아즉 女俳優가못되고 見習生의자리를 버서나지못한 사람까지라도 將來가 囑望안되는 사람이업다

◇보는바 나희만타는 理由로 隱退하는 女俳優들이 잇는데 나희만타고서 俳優노릇이 안된다는法은 六法全書에도 업스러니와 七法全書에도 업는말이다 때문에 化粧이잇지안흔가 化粧의必要란 얼는말하면 젊은俳優가 늙은役을하려할때에 化粧이必要되는것이요 늙은俳優가 젊은役을하려할때에 化粧이必要되는것인즉 나는이제 나희만타고 隱退하려는 女俳優들을 挽留하기前에 現在 朝鮮劇團에는 三四十歲된 女俳優가 얼마든지 必要한것을 切切하늣기는 者이다

◇朝鮮에서 最初女俳優로 天下에 그名聲을 떨치든 馬豪政女史는 요즈음 京城府珠洞自宅에서 閑日月을 보내는中이지만 每樣 劇界에 關心을두어서 집업시放浪하는 男女俳優들에게 따뜻한援助를베풀고잇다니 眞實로 感謝한일이다 劇團에投資해서 成功한사람은 馬豪政女史니 明哲한頭惱와緻密한規謀가足히서 그의오날을 가저오게한것이다 엇잿든 갓가운將來에잇서서朝鮮의女流興行師요 女俳優들의 어머니인 馬豪政女史의 再出馬를 期待리는 마음이만타

◇寫眞은右列上으로부터 ― 高漢女 ― 姜石燕 ― 金素暎 ― 金仙草 ― 申銀鳳 ― 全玉 ― 李貴女諸孃

「푸로세니암」서 野外劇의 提唱
演劇을解放하라
羅雄

演劇의가진 遊牟한大衆性과 集團性을 制限하는 舞臺의局限性을 깨트리기爲하야 오늘의熱熱한 劇作人들은「演劇을 푸로세니암에서 解放하라」라고 부르짓는다 우리가 常識的으로 아다십히 演劇은本來劇場의 조고만한『푸로세니암』에서 發生한것이아니며 俳優라는 特定된 專門家에서 태여나지안헛고 民衆의 뛰는 脈搏에서나온것이다 世界的으로 오랜歷史를가진 希臘劇은늑되오니소스祭에 百姓들이모혀서 노래를부르며 춤을추든것으로부터 始作되여 그後(二千四百年前)에 圓形劇場이 비로소 建築되엇다 그舞臺는 觀客席으로兩側을둘러싼圓形舞臺엿고 觀客席間에는『와로데스』라는 合唱隊가도라다니며 춤추고노래할수잇는 通路가잇섯다 그리하야 여기에는 觀客과舞臺가 密接하게 接觸되여잇섯다 事實 演劇은 舞臺와觀客의 共演에서 有機的聯關을갓게됨으로 大衆에게傳達하는情熱的 感染이強烈的이며 直接的이다

觀衆의 集團心理는 舞臺에서 進行되는事件이 그들의生活感情의 反射이며 滿足을 늣겨 바로소 觀衆은 그演劇의 一部分이되여 그들의 醉心하는 雰氣는 直接 舞臺의效果를制約하고 그效果가 反響하야다시 觀衆에게 感動을 주는것이다 이러한 猛烈한 集團的藝術인데서 劇이 다른 어떠한 藝術에 比肩할수업는 獨自的境地가잇는것이며 이것이 演劇의 藝術形態가가진 本質的特徵인것이다

그런데 세월을따라 演劇이 密閉內로『프로세니암』으로 보된뒤로부터는 보는사람과 하는사람을 特定해서 그사이를 分離시켯다 舞臺와觀客席은 建築上으로나 效果上으로나 完全히 分離되엿다 그래서 演劇을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생겨서 全然獨立해서 나아오든가 次로 觀衆의 卑俗한心理에迎合케한다는 興行家의 野卑한 小家人的心理가 劇을 支配하게되자 고만 劇의 畸形的墮落을 나케되고말엇다 이러케 卑俗化된『뿔조아·이데올기』에 反抗하고 나온것이 아모런××的背景을 갓지못한 小『뿌르』인테리겐챠놈들의 所謂 新劇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傳統에서 버서나 歷史的使命을 안고 建全한 文化建設과歷史的意味에서 眞正한 正統的演劇을爲하야 確固한意志를 가지고 精進하여잇는 劇場人이 必然的으로 이偉大한 世紀에 登場하게되엿다 이러한劇場人만이 大衆의 脈搏과 呼吸을 劇에담울수잇스며 그들만이그러한것을 强化, 確保하기爲하야『演劇을프로세니암에서 解放하라』고 웨칠수잇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觀點에서 野外劇을 再出發식혀야 할 것이다

또 演劇을 프로세니암에서 뛰여나오게하는것은 劇의藝術形態그自體의 活路를 開拓하는데도 큰意義를 갓고잇는것이다 近代 映畵가 誕生한後로부터 그藝術形態의 가진强烈한 大衆性에 놀려잇든演劇이 發聲映畵의 出現으로二重의 威力에 놀니게 되엿다그래서 演劇이 그活路를 더나갈라고 演劇에 映畵的手法을採用해서 映畵가 舞臺를 提手시키는것을 본나 勿論이것도 그活路의하나이겟스나 그것은 自慰的方便에 지나지안는다 그러케함에는 前述한演劇의 藝術形態의 本質的特徵에서 차저야할것이다 演技者와 觀客과의 完全한 共演共感으로 演技者의 演技에서밧는 觀客의 呼吸이 얼마나直接的으로 反射的으로 또다음演技者에게 逆作用하며 또다음演技에이逆作用의結果가 얼마나敏速히觀衆에게 作用하는가를생각할때 映畵의『스크린』과 觀客의關係는 여기에比肩할수업다 『스크린』에서나오는 豪華한音響的效果와 感激的다이로구에 對해서 觀衆이아모리熱狂的으로떠든다하드라도『스크린』의演技者는 이것과는全然無關係하게演技를繼續하는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도 우리는演劇을『프로세니암』에서 解放식힐것을許假하여야할것이다

移動式小型劇員一同

우리의演劇과
外國劇의影響
金珖燮

우리 에게도 假面劇갓흔것이 史的으로보아 잇기는하엿지만 演劇의傳統이라고는거의업다고하여도 過言이안이다 演劇이 動作에서始作되엿다면 演劇이업다는것은 動作的表現本能이不足하거나 微弱하엿다는것일것이다 그러나朝鮮사람이라고 演劇을可能케할動作이업슴은안이다 그原因은오허려 그生活狀態에잇다고하고십다 事實우리의生活이란 演劇이될만큼 動的이 되지못하엿다 그러타고 演劇을 가질 또는演劇을세울 그런 文化的要素와 表現的能力이 업슴을 말함은아니다

朝鮮사람도 愛蘭民族 ― 近代演劇史의가장燦爛한 ― 에서 보는바와갓치 읽는것은 그다지 조와하지안으면서 이약이듯고 求景하는것은 지지안케 조와한다 그러나 그耳目은너무도 주림에 시달려 던센스의레코ー드와 輕浮한 興行劇으로 溺이나 免하려한다 여기에 劇다운劇을 보여주라는衝動이잇다 大體劇다운劇이란 漠然한말이지만 그보다도 確實한것은 이때까지내려온 演劇 의路程에서 한개의 劇다운劇本을 차저낼수업다는것이다 그것은 맛당한失敗의經驗이다 大體劇의傳統이업고 따라서劇을보지못한사람이 엇더케劇을 쓸수가잇슬가? 映畵를보지못하고 맨드자는것과갓다 여기에事實悲劇이잇다 劇이란 조희우에쓴글이아니고 舞臺우에 사람으로쓴글일것이다 舞臺라면 爲先우리에게는『광대』가떠오르는形便이다 그래서劇이업는社會에서 劇을 세워볼가하는데서 劇을가진나라에서 劇을가저와야하겟다는것이다 이러케 移入되는것이 非難밧는外國劇이다 最近朝鮮에서도 學生劇 劇藝術研究會를비롯하야 놀라울만큼 外國劇을上演하고잇다 이것은 演劇이업고 或은 沈滯한社會에서 그것을振興식히고또는樹立하는데唯一한길이다 갓가히 日本의 新劇樹立이 築地小劇場을 通하야서의 外國劇移入에잇고 넓니 世界의新劇運動이 노르웨ー의天才劇作家입센의劇의各國에飜譯上演됨에잇슴을보아도 알수잇슬것이다

훌륭한劇文化를가진民族이라도 時代에따라 그盛衰가잇고 衰할때는隆盛한社會의그것을移入하게됨은 劇뿐아니라 一般文化에 잇서서 必然的이며오직問題는 엇더케移入하겟는가 하는것이나 이것은여기에담기에는 너무큰 **論題** 이다 그보다도 늘상問題되는것은 外國劇이 어느程度로 鑑賞되고理解되는가하는點이다 勿論 外國劇이란 制作된그나라 사람을 對象으로 된劇임으로 生活과 感情이다른 다른나라의 觀客에게는 理解못할點 생소한點이 적지안타 觀衆뿐아니라 出演者에 잇서서도 그러타 喜劇 갓흔데서 그러타 더군다나 요새는國際的交流가頻繁하야 거진 서로서로親하게되여진다 그實例는 比較的水準이 나흔 ― 或時語弊가잇슬는지모르나 ― 觀衆이가장興味잇게 自己네의感情과갓치『필링』에가장感한『필링』의性格의 그것을體驗하고잇슴을볼수잇다는것이다 이와갓치 劇에잇서서도 外國劇이라고 그냥理解치못할것은아니다 實相 사랑이란그다지만이 다른것은아니다 이點에 文化線의交錯와 마찬가지로演劇界의 交錯도 可能한것이다그러나 이可能을 信仰하기前에 우리는이可能을더 可能케하기爲하야 新來를試하려는意圖도잇다 여기에는 藝術的 立場으로만하여도 큭問題가잇다 그러나 그것도考慮하면서우리는 우리의劇을樹立하려는데서 充分히試驗하려하며 이러한多難한過程에서 우리의尊敬할劇作家가 出現되여야할것을 또한出現되여잇는것을말하여둔다

演劇은어대로?
混亂期의現段階
新興演劇의新使命
白鐵

眞實한演劇 을위하야眞心으로 그의發展을근심하는一人으로서의나는 現在의朝鮮演劇에對하야 實로沈痛한感想을갓고잇다 첫재로 朝鮮의演劇은 그의偉大한 近代史的出發에잇서다른 資本主義國의 演劇과가티 一定한 完成의封建劇의 基礎를갓지못하얏다 具體的으로조선은 歐洲諸國의封建貴族의 巨大한悲劇과가튼 그리고日本의歌舞伎가튼完成藝術의劇的遺産을 갓고 잇지못하얏든것이다 이것은 朝鮮의近代劇이旺盛치못할 第一의不幸한條件이엇다

이와갓치 不幸한遺産우에 出發된 朝鮮의近代劇이처음에잇서 直히 眞正한『부르조아』劇에드러가지못하고 新派劇이라는 日本의畸形劇을攝取하게된것은 할수업는運命이엇슬는지모르나 이新派劇이輸入된데對하야 내가 그보다도不幸하게생각하는것은 本來이新派劇이란것은 眞正한『부르조아』新劇의 登場을 祝福하기위한 一時的『프롤로그』的存在로서 卽時退場하여야할運命의劇임에不拘하고 朝鮮에서는 이『프롤로그』的存在가 언제까지든지 退場을아니하고그대로本舞臺에 남어잇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 今日에잇서演劇市場의全部를 支配하고잇는 世俗的人情新派劇과 低趣味의『레퍼트리』의 橫流를보면그만이다 이러한不祥한現象은確實히朝鮮의近代劇의 發展에잇서不幸한條件의 하나가안일수업다

다음에二十年時代以後에朝鮮의新劇運動을위하야結成된모든劇團例를들면『劇藝術協會』『文士劇團』『民衆劇團』『劇文會』『土月會』等은 어느것이나質的實力을갓고登場된것이아니라 다만一時的興奮에依하야糾合된것인外에 結局 近代新劇을建設하는困難한 事業에는 實로無力한存在이엇다는것! 이것이 다음에오는不幸한條件이엇다

네재로『프로레타리아』劇運動 ― 朝鮮에잇서 近代劇의一歷史的任務와 그것을止揚하는『프로레타리아』劇의 建設을兼하야 履行해야할困難한條件우에 誕生된『프로레타리아』劇運動의過去가 그의多難한歷史的任務를다하기에는 不幸하게도 그歷史的存在는 너무나 幼年이엇스며 무엇보다도組織的構成에만은 缺陷이잇섯다 그리하야 眞實한劇의全任務를擔任한『프로레타리아』劇運動도 그의過去(現在까지도)는極히末活潑하엿다

그와가치 近代(그리고現在)에잇서 가장 不幸한遺産的으로 下에그리고 그背後의決定的條件下에 로遲却되여잇는客觀的條件 畏縮되여온것이 現在의朝鮮演劇이다

오늘날의 조선演劇!한마듸로말하면 그것은混亂期의演劇이다『現在그것은 그가가저야할 歷史的地位와 遂行할當然한場所와 方面을일코 헐신뒤떠려진 世紀의泥濘에 半身을드려박고잇다 여긔에整頓과發展은업다 다만混亂과沈滯와姑息이 잇다 그리고이런狀態에 奇蹟的飛躍은 本來부터바랄수업다 다만積極히困難한課期아래 一定한發展이 생각될뿐이다 그러면 現在의混亂된演劇이 眞正한劇으로發展됨에는 엇던方面과將來가생각되는가?

現在朝鮮 의眞正한劇의建設이 演劇市場에 汎濫하고잇는 低級한新演劇에잇지아니한것은勿論 그러타고하야 멧번이고 失敗된近代劇을요즘에다시 建設하려는『劇藝術研究會』에 그의貴重한任務가노여잇다고도 생각지안는다 언제든지 近代劇이 建設된後에 그뒤에오는것이『프로레타리아』劇이라고 생각할수는勿論업는일이고 그러타고 하야서現在朝鮮의 모든客觀的條件은日本의築地劇團의役割을 朝鮮에서同研究會에許諾할만치 緩漫하다고도到底히생각할수업다 今日의 朝鮮演劇의混亂을救하는巨大한任務요 오직朝鮮의近代史의悲慘한運命과 現在의 困難한地位를明確히認識하며그困難條件의克服을위하야 出演하는 巨大한歷史的階級的意義를가지는劇主體에 실니어잇는것이다 그리고 그러한任務를갓고잇는 그리고 그것을敢行할眞實한劇主體에健闘와祝福이잇스라!

＝寫眞우＝ 馬豪政 池崔順 金鮮英

演劇春秋

◇不遇의演出家洪海星君은 地方巡廻劇團을 따라댕긴다고 이익고 이藝術家도 卑俗에 빠저가고말려나?

◇朝劇 開成社一齊히演劇繳演 演劇『팬』의喜消息

◇『劇研』의 柳致眞、李軒求君等松田里、海水浴場에。가을의活動을期待한다

人形의집을나와서
「노라의後日譚」
【61】 蔡萬植 作 吉鎭燮 畵

뜻아닌한풍파 (2)

하얀 양봉투에 여자글씨가치 또박또박 정하게쓴 주소 성명이 갈데업시 노라에게로 온것이다 뒤에는보니 봉한곳에 13이라고하엿고 귀행이로 조고맛케 한몽(韓夢)이라고 써슬뿐이다 시내소격동이라고 하엿스니 스탬부는 보지아니하여도 시내에서 누가한것이다 그러나 경성시내에서 노ー라에게 편지를할사람은 아모도업다 그는 그와가치 집을나와시골로다녀온뒤로 헤경이이외는 동무들을 맛나지 아니하엿다 그럼으로 아모도 노ー라가 이곳에와서이러케잇는줄아는사람은 업슬것이다

혹 명택이가?하고 여보앗스나 그것은 허무한생각이요 필시 재환이의 짓인듯십혓다

・옥순이의 눈치를보니 그것이 재환이에게서 온줄은 몰으나 이곳에온뒤로 처음 밧는편지요 또 노ー라가 이상하게 편지를 들고서서 뒤적어리는것이 잔득 호기심 이나는모양이다

옥순이가 재환이의 편지인줄 몰나본것은 그가 재환이의 필적을 몰낫든지 그럿치아니하면 재환이가 미리서 필적을 곳친것일것이다

편지를 뜨더볼가 말가 망서리다가 노ー라는 봉투귀를 뜨덧다 미상불 속엣글씨는 것봉투와달느다

흰 편지지에 국문과 한문을석거 잘게주어박은것으로 한장가득차서잇다

노ー라는 편지사연보담 맨뭇흘보앗다

『재환 올님』

이라고 쓰여잇다

노ー라는 무슨 죄나짓는것가티서 옥순이의 눈치를 살폇다

옥순이는 잠잠코 바늘을놀니기는하나 편지가 궁금한듯이 각금 눈을 거듭떠본다

『아즈머니』

이러케 편지서두는 시작이되엇다 노ー라는 읽어 내려갓다

『종종 뵈우면서 편지질이라니 당치아니하다고 생각하실것이요 또 당홀히 벽이실지도몰나・만히 주저하엿습니다만은 아모리하여도 한번은 편지를 드려야할형편이되야 부득이 붓을 들엇습니다

실상은 어쩌 오청을 하여데에들 갓섯습니다 기다렷스면 뵈앗슬것이지만 곳쳐생각을하고 도라와서 위선 멧자 적어 올니는것입니다

노ー라는 편지에서 얼골을 들엇다

『어쩌 재환씨오 섯섯나요?』

이러케 못고나서 안쏟사!』

하고 후회 하엿스나 느젓다 인케는 옥순이가 편지가 재환이에게서 온것인줄 넉넉이 알게되엿슬것이다

『예』

옥순이는 고개를 듣지아니하고 조고만소리로 대답을하는것이 그역시 마음이 동요가된모양이다

노ー라는 그다음말을 물을가 말가하고 망서리는데

『웨요?』

하고 옥순이가 고개를 치어들꼬못는다

노ー라는 편지가 재환이에게서 왓다고는 해바릴가하다가 말을돌니엇다

『와서 무어라든가?』

옥순이는 도로고개를숙인채 아모대답을아니한다 노ー라는 바로소 공기가 긴장이되것을 깨닷고 또한번뉘우치는 생각이들엇다 그리하야 그는목소리를훨신 보드랍게 하여가지고 재처물엇다

『응? 무어라구허시든가?』

옥순이는 한참생각을 하다가 겨우 대답을한다

『네려가래요』

『집으루?』

『왜 내려가래고?』

『그저 내려 가라고만 합되다』

『그래서……무어라고 대답햇나?』

『아무말두 안하엿서요』

『내말은 무어라고 못흔던가?』

『못더만요』

『무어라구?』

『왜 혼자잇느냐고?』

『그래서?』

옥순이는 얼골이 붉어지며 대답이 맥힌다

라디오

七月三十日（日曜）（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氣象通報
◇同○時三○分 뉴ー스
◇同○時五○分 俗謠
一、家庭歌 二、孔明歌 三、방아타령 四、노래가락
李桂香 李世鍾
◇同一時三○分 바이올린獨奏
一、로ー만스 베ー토ー벤作曲
二、B線上의아리아…바하作曲
三、안단테ー칸타빌레…차이콥스키ー작曲
四、룬되ー노…크라이슬러作曲
山下酉
◇同二時 野球試合實況(中繼) 全國中等學校野球朝鮮豫選決勝戰ー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ー
◇同六時 童話 동무를爲하야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土人의分布와習慣(四) 柳長根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話 現代音樂의新傾向(三) 金管
◇同八時 歌詞와奏樂
一、春眠曲 二、行軍樂 三、時調 金眞紅 高敬德
◇同八時三○分 唱劇 春香傳中 御使出道 吳太石 金世俊 金光彩 李小春 韓孫仙
◇同九時三○分 (A)時報 氣象通報 뉴ー스
◇同九時四五分 翌日프로그람發表 滿洲로부터中繼

第一放送順序

七月三十日（日曜）（波長三三三米）
▲午前六時 (A)ラヂオ體操 ▲同六時五○分 浪花節 あいさつ 朝顏代表に選ばれて ▲同七時三○分 (A) 日比谷公園新音樂堂より中繼 義太夫 ▲同八時 郭文章(吉田屋の段) 一○分 (A) 新内 若名佐名 ▲同八時三○分 (O)ラヂオ圓祭

◇明日順序◇

七月三十一日（月曜）（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時五分 俗謠 張彩珣 李擧玉 ▲同○時四○分 뉴ー스 ▲同二時 (全國中等學校野球朝鮮豫選決勝戰)▲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童話 부싯돌 沈宜麟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童話大家안데르센先生(二) 高長煥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座 皮膚病에對하야(一) 醫學博士 ▲同八時 音樂 唱劇 ▲同九時三○分 氣象通報 뉴ー스 翌日프로그람發表

工場豫定地住民에 突然假處分命令

處分잇자即時人夫總出動 動産、其他를함부로除去 加藤精米所의暴擧

【群山】 인천 가등정미소(加藤精米所)가 군산으로 진출할 으로부터 도로문제 괴지문제등으로 문제에문제를 거듭하야오든것은 이미루차 보도한바이어니와 지난이십칠일에 그괴지내에잇는주민들에게 돌연 가처분명령이 나리게되야 집달리륙인이현장에 출장하야 일체의동산이며 철조망등전부를 제거하라하자마자 가등 공장건축공사중에 일하든 인부오백여명을식혀 순간에 전부를 치어버리고말엇다한다

住民에겐懷柔策 狡猾한加藤의手段 警察에責任轉嫁

별항보도와가치 가등은 구로지관리자(舊土地管理者) 서촌(西村)에게 대해서는 별항과갓흔 토지명도를(土地明渡)를 독촉하야노코 경찰의중재도 듯지안코서는 가처분을 집행하는현장에 자긔집사람들을 보내여서 경찰이 중재한다고하기에 자긔는 방관만하고잇섯더니 이러케되고말엇다고 몃십원혹은몃백원식주겟스니 조케 철거하는것이 엇더하냐고하는 회유책을 쓰면서 은근히경찰에 책임을전가하며 서촌(西村)에게만 압독하다는말을 듯니다고하는 교활한수단을쓰고잇다고 일반의 비난이 자자하다고한다

移轉費勸하다못해 警察도態度變更 今後不干涉을言明

별항보도한 사건에대하야 그동안의 경과를회고하여 드르면 이전비(移轉費) 문제가 말성되여오든바 지난이십오일까지 한단락을 짓게되엿는데 주민측에서는 이전비 삼천원을청구하엿슴에대하야 가등은 팔백원밧게는주지못하겟다하며 경찰서에서는 일천오백원으로 중재하려고하엿스나 쌍방의태도가 서로강경하엿슬뿐아니라 가등은 일천오백원조차 승락지안이함으로 주민에게 이십칠일까지 철거치안하면 강제로철거 시기겟다고선언한 경찰서지도 권에한을취소하고 동시에 절대로불간섭하겟다고 언명한바가 잇섯다한다

共濟會救護班 第一回分送金

【神戶】 고국수재의보도를들은 재신호조선인 공조회(在神戶朝鮮人共助會)에서는 간부제씨의대활동으로수해구제반(水害救濟班)을조직한후 주야를놉고하고 동정금을 수집하야 제일회분을 수해현장(水害現場)으로 금월이십이일에 보냇다는바 의연한분의 씨명과 금액은아래와갓다한다

▲閔丙穆 金鳳守 閔泰和各二圓▲閔千氏 六圓▲李奉五 崔潤宗 閔正植各一圓▲朴鍾永 崔斗述 朴任俊 朴用大

玉 金珍玉各五十錢▲李泰旭 四十錢、裵五讚 崔永鶴 金赤根 吳致根各三十錢 ▲劉玉來 朴鍾華 金錫德 邊名口 朴三出 洪允賢 金辭浩 鄭三善 鄭銀萬 金戰烈 金德善 裵達甚 許相坤 吳二根 吳萬根 金海龍 金自龍 蔡昇模 張錫出 金熙泰 金在洪 曹二祚 金德容 廉辰甲 姜萬仲 吳永煥 閔時道 金龍雲 李正元 朴貴同 安龍海 朴又錫 裵學善 閔內大 車彩鳳 李在甫 崔相九 林聖福 柳宣禹 金漢英 朴漢祚 金判玉 李勝光 金明守 金六弘 張武甲 李吉用 閔雲相 張義迫 趙寧祚 金敬岩 張大東 崔潤石各廿錢 計三十三圓九十錢 (謝廣告費用五圓四十錢控除)

賣渡契約書를 欺取毁棄하고 警察署에被逮

【仁川】 부천(富川)군영흥도(靈興島)에사는 김영완(金永完)은작년시월말에 그의소유토지오백여평을 그섬에사는 김준만(金俊萬)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대금사십오원을바는후 차일피일하고 그토지의 등긔수속을 아니하여줌으로 김준만은 소송의뢰인(依賴人)률목리(栗木里)에사는 김윤배(金潤培)에게 그사실을 말하고 등긔수속에대한것을 위임한후 권긔매도계약서까지 매뒤엇섯는데 김영완의아들 김진수(金眞洙)(二○)가 김윤배를차저가서 원만히 처리하여달라고 감언리설하며 그토지가 사십오원에 팔리엇든지 오십원에팔리엇든지 그계약서를 잠간보여달라함으로 김윤배는 무심히보여주엇든바 우준한 김진수는그만 그계약서를 찌저버리고 다름업시자박(自縛自縛)이나 금일인천경찰서에서 엄중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被檢者十九名中 十一名은釋放 忠州農樂團衝突事件

【忠州】 루보=충주군금가면(忠州郡金加面)농악단충돌사건으로 피검된사람이 너무만허서 고당국에서도 이것을 고려중이라함은 작보한바와 갓거니와지난이십일에는 피검되엿든 십구명중에서매하리측(梅下里側)정창성(鄭昌成)등십일명은석방되고나머지 여덜명만이 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고한다

全夜停電으로 南原市大混亂

【南原】 이십륙일밤아홉시경부터 남원시가에는 전등이꺼저

『숫발』青年會 創立紀念式

【城津】 성진해정숫발청년회에서는지난이십사일오후구시부터그회관에서창립삼십주년기념식을성대히거행하엿다정각전부터운집한수백군중은장내장외에립추의여지도업시대성황을일우엇는데 시간이되자 리은순(李恩淳)씨의 개회사가잇슨후 고우영(高宇英)씨의 연혁보고가잇섯고 성적이우량한 야학생에게 우등상장수여식이 잇고나자 래빈축사로서 축하식은 맛추고 여흥으로배수암(裵壽岩)씨의 지도하에 남녀야학생의 유희차가가 잇슨후 동십일시경에 무사폐회하엿는데 연혁보고에 의하면 창립이래 십삼개성상에 가진신산을 맛보면서 무산아동의 문맹퇴치에 진력을 다하여왓다하며 현재 학생수효는 팔십명가량이나된

燒酒統制에 絶對反對表明 安州釀造業者結束

【安州】 조선술전매(專賣)의 전제인소주통제에대하야삼정측(三井側)에서 위원을 파송하야 당지양조업자들과상의하엿스나 당지 양조업자들은 절대반대를 표명하엿다고한다

三歲小兒溺死

【馬山】 이십팔일 오전구시경 마산부와 창원군경계되는 상남면(上南面)에서 마산부 상남동(上南洞) 박봉조(朴奉祚)의 장녀 순덕(順德)(三)이가 혼자 내에드러갓다가 무참히 빠져 죽엇다한다

家屋崩壞로 重傷當한老婆 而長發起로救助

【高敞】 금번모진폭풍우로인하야 필경고창군 고수면두평리(高敞郡古水面斗坪里) 유은규(柳殷圭)(?)라는 노파의 가옥이 전괴(全潰)되자 몸에 중상을

上半期刑事犯 七百五十四件

智能犯의增加傾向이注目 江陵郡下의犯罪數字

【江陵】 금년일월부터륙월까지 강릉군하에서 발생된범죄건수를 조사한바에의하면 형사에 관계된것이 륙백팔건 특별법이 일백사십육건 도합칠백오십사건이 발생하얏스며 여기에대한 검거율을 보면 칠백사십륙건의 구할구부라는 성적을 보이고잇스며 특히주목되는현상은 지능범이 년년히증가하며 범행인종별을 보면 조선인륙백팔십륙건이 최고이며 다음이일본인 십삼 그리고 중국인이 다음순차이라한다

取調에따러 온갓罪惡暴露

誘引惡魔王中國人夫婦

【平壤】 루보=평양서에서는 음흉한 중국인의 조선소녀유인 총본영인부내아청리(衙廳里)왕유지(王巘智)부부를 엄중취조중이르로 마수에 걸렷다가구원된 조선소녀는 전부륙명으로 십삼사세까지 길너서 안동(安東)이나 산동(山東)방면에보내여 매음(賣淫)을 강요하여돈을 모흐든후에는 다시 인처(人妻)나 매소부(賣笑婦)로 팔어버린가련한 소녀가 과거십여년동안에 상당히 다수에달한 모양으로조선말들이 커버리게하기까지에는 가진난폭한 행동과 혹형을가하든것을 자백햇다 지금까지구출된소녀는 신문고사를 읽는사람들이 커마다 양육하겟다고지망하여 이십칠일아침까지에 전부사랑스러운 양부의손에 옴마갓다한다

兩臂업는 疑問의腐爛屍

安邊秀達里海岸에漂着 自殺、他殺알길업서

【文川】 지난십구일오전오시경에덕원군북성면수달리(德源郡北城面秀達里)해안에서 좌우의팔이업는 남자의 시체(屍體)를동리리덕수(李德秀)란사람이 발견하고 당지경찰에 고발하야 경관과의사가 현장에 달려가서 검시하엿다는데 사후 이개월가량이나되여 전체가부란하엿슴으로타살인지 또는 자살한시체가 파도에밀려나온것인지분별키어렵다는바 좌우의 팔이업는것은 극히의문이라한다 인상(人相)은 조선인이듯 하다하며신장은오척오촌이요백색 메리야쓰와 화색승마바지를 입엇는데 년령은삼십오륙세 가량되여보인다고한다

곡(哭聲)간괴부모집에착수하야 철거한구조를 강구하는중이바 리라한다 일반면민은 다소의 동정이잇스며

한이겨자로 우리가장신망하는바이데 봉탁한교도하나로딸미안아업마나처명상을 입엇는지모르겟습니다 문제의령윤도는 물론철거에처벌치안으면아니되겟지요 라고말하엿다

大田某普校訓導 女生徒에暴行重傷

生徒父母는告訴를提起 加害者刑務所收監

【大田發】 귀의가르키는제자 십사세된소녀에게정적폭행을감행한야수와가튼교원이잇다 대전군내모공립보통학교(大田郡內某公立普通學校)훈도로잇는림모(林某)(二三)은금년봄에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대전모보통학교에취직한자로 지난륙월상순밤이림훈도의숙직이엿섯는데 마침그날밤에륙학년생도 충남도청토목과에근무하는 김모의딸 김희자(金喜子)(一四)가 놀너왓슬지음에림모는 불타는정욕을 저되지못하야 희자에게덤비여 정욕을마족시키엇다 희자는원체 나이가어린십사세의 소녀인지라 국부의파렬이되엿는대로 집에돌아갓스나부모에게까지 그런말을하기가부끄러워서그날만하고그이튼날도학교에출석하엿섯다 그러나 원체모진상처를입은까닭에 바로낫지아니하고 상처는날이갈스록 더하야감으로 하는수업시 그의부모에게사실을 이야기하얏섯든바 이에분개한 희자의아버지는 폭행상해죄로 림서철을걸어 대전검사국에 고소를제출하엿다 방학중에 그의집에돌아가잇는 림서철은 지난십팔일에 대전검사국에서체포하야다가 형무소에 수용하얏다고한다

某普校長某氏談

우리학교에이와가튼일이잇 … 습니까만 훈도=서이와가튼 야수의짓을커지르고보니 감독자인나도 일반학부형에게 무슨낫으로대할는지모르겟습니다라고말하며 비통한얼굴로눈물을흘닐듯하얏다

學父兄某氏談

이번사건에 학부형되는모씨는

元山支局主催 保健體操講習

八月四日부터八日까지

【元山】 억센조선을건설하기위하야 본사의하긔 사업중하나인보건체조 순회강습회(保健體操巡回講習會)를개최한다는은 본보에두차 보도되엿거니와 우리원산에서도 예정한 일자대로오는 팔월사일부터 동팔일까지 … 터동오시까지 해수욕장인 송도원(松濤園)에서개최할터인바 강사는김태식(金泰植)씨로사계에 고명한 선생이란 청송을받은만큼 금번의강습생은 물론만흥리라는예상인바 일반강습생은오는 팔월일일까지 본보 원산지국으로

테너ー方一君의 鄕土訪問獨唱會

七月三十一日밤에 本報原州支局後援

【原州】 방일군은 일주이 고향을떠나대판낭화(浪華)중학을맛치고 다시동경에가서무장(武藏)음악학교에서 공부하는일변 이태리(伊太利)성악가『베르칸트』씨문하에서 베르칸트식 성악을 연구중인 군은금번 고향인원주 … 日)밤에 상동리례배당에서독창회를 개최한다하며 멀리군을위하야 가티동경에서연구중인찬조출연 테너 『레너ー』서상석(徐祥錫)씨 첼노 김태연(金泰淵)군 피아니스트 안영자양(安英子孃)

更生團監禁

自殺길을憑藉 無錢取食하고 警察에被逮取調

【仁川】 일본산구현(山口縣)소도군(小島郡)충포촌(沖浦村)원적을두고 개성(開城)부서본정(西本町)에사는 각화전사랑(角畵展四郞)(三二)은자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경에 인천신정(新町)『카ー페』에와서 밤한시가되도록 료리십팔원어치를 무전취식하고 방금인천서에서 취조를밧는중인데 그는 자살하려가는길에 그와가티 하엿다고방자를한다고한다

阿片窟襲擊 男女二人逮捕

【平壤】 이십칠일오후오시사

더럽사위내쫏자 살은종적을감취

해망구실격의그부모

【興南】 원적을 원산부 석우동(元山府石隅洞)에두고 현재 흥남읍천긔리(興南邑天機里)에 거주하는 김동훈(金東勳)이란 사람은 본래구차한처지로 항상 생활난에 쪼들리든바 얼마전에 흥남구룡리(興南九龍里)에사는 공문칠(孔文七)이란 사람의중매로 흥남조선질소비료회사 조계(朝窒會社荷造係)직공 조룡수(趙龍洙)를 그의딸선애(善愛)(一七)의데릴사위로정하여 금후이개년간 회사에서밧는 월급을 처가에드려노코 그다음에결혼식을 거행하기로약속한바 첫달에저우 륙원만 가저왓슴으로 이러케 처음부터 위약하는것으로밀우어보면 도저히 이개년을 계속할수업슬것이며또그런신용업는사람에게 딸을 줄수업다하야 파약하기를말하자 이에분개한조룡수는 그만다른집으로 옴겨가고 말앗는데 그리자얼마안되여 선애는『한울마즈시지갑니다 기다리지마시요』라는편지를 써노코 어데론지종적을 감추고 말앗다 그리하야 선애의어머니는주야로 그의행방을 탐문하는바중매인인 구룡리 공문칠의집에잇다는 말을듯고 그리로차자간즉 공문칠은 당신은딸을나엇슬뿐이지 이제는아모 상관이업는사람이라고하야 결국 만나보지도못하고 도라와서 이십여일에구두로 흥남경찰서에 고발하엿다는데 장차엇지될런가 일반은이야기 거리를 삼고잇다한다

米國留學마치고 裵敏洙君歸國

【平壤】 평양숭실(崇實)중학과숭실전문(專門)을 졸업한 배민수(裵敏洙)씨는 지금부터삼년전에 도미(渡米)하여 미국 일리노이주(州)시가고시(市)맥코ー믹신학교(神學校)에서 수업중이든바 금춘동과를 졸업하고 이십륙일금의환향햇다한다

女息죽이고 自殺企圖惡父 檢事局에送致

【元山】 긔보=지난십삼일밤열두시경 시내남촌동(市內南村洞)에서 조병하(趙炳夏)(三○)란사람이 신병으로 자살(自殺)을계획하고먼저자긔의친딸(七)을 목을졸라죽이고 자살하랴다가 발각되여 시내고려의원(市內高麗醫院)에 입원치료를 밧는일방 범행에의하야서 취조를밧는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는치료를바더 생명의 위독을 면하게되자 지난이십륙일에 병원을 퇴원하여 세상사람에게 대할면목이 업다하야 동일원산경찰서에 들어가 자백하자동서에서는 즉시로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검사국으로 인치하엿다한다

夏期兒童 聖經學校開講

【進永】 경남진영예수교회에서는 하긔휴가를리용하야 아동청경학교를개설하엿다
科目ー聖經童話 音樂 手工 新生 학술 講演 其他
期間ー七月二十四日로八月五日까지
參加資格ー六歲以上十七歲以下男女兒童
講師ー金仁善 金永吉 金汝珍 尹英今 廉愛羅
場所ー進永長老敎禮拜堂

平北의酷暑 水銀柱百卄度 車牛慘死二頭

【新市】 지난십오일부터열리는둘변하여 한란계가 파렬할뜻이 일귀가 더워지드니 지난십륙일정오에는 백이십도나되여 선천읍내 천남동(宣川邑內川南洞)에 거주하는 조병옥(曹炳玉)의 소유의우차(牛車)에 삼청광산으로가는다이나마이트를실고 선천으로부터조악동(造岳洞)까지 가든길에 약섬리의 상거를두고 쥐는듯이나려쪼이는 혹서에 쓸고가든소가

本報支局主催後援事業

平壤

妙香山 蝀龍窟 探勝團募集
▲時日 八月五、六兩日間
▲會費 十圓也
▲主催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後援 平壤驛

榮山浦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六日午前八時
◇場所 榮山浦穀物檢査所코ー트
◇主催 榮山浦庭球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榮山浦支局

原州

方一君鄕土訪問獨唱會
▲時日 七月三十一日午後八時半
▲場所 上洞里禮拜堂
◇贊助出演 첼노、金泰淵、테너、徐祥錫 소프래노、朴信嬉 피아노、安英子
◇後援 朝鮮日報原州支局

三防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八月一日出發
▲會費 十七圓(旅費及寫眞代其他)
▲主催 朝鮮日報社三防支局
▲後援 三防驛 三防保勝會

元山

保健體操講習會
△時日 八月四日부터八日間
△場所 元山松濤園
△講師 金泰植氏
△主催 朝鮮日報社元山支局

野話 雲峴宮의봄 41

琴童作 石泉畵

五의八

세도 김씨의 집은 조용한 때가 업지 안헛다 자긔가 직접 벼슬을 원하는자 혹은 자제의벼슬을 부탁하는자 아첨하는자 죄를짓고 벌을면코저 하는자 옥에 가친이의 백방을 원하는자ー 정사에 관해서 무슨 부탁을 하고저 하는자는 갑진 물건을 뇌물하고 소개를어더가지고 매일 세도에게뵈려고 차저드는것이엇다

그런 무리들때문에 세도ㅅ집 외사(外舍)는 늘 가득차잇고 그들을연하여 청자기에게 간청을 하여 뵙기를 청하는것이엇다 불리쳐도 또차도그들은 어떠케 하여서던 세도에게 뵈랴고 련저를 붋고하고 달려 드는것이엇다

그려틋 늘 분주스럽든 병긔의 집이 이날은 비교적한산하엿다

다행이 이날은 한산하기때문에 홍선은 곳 병긔의 방에 인도되엿다

『일간 무양하시오?』

이런 째에 늘 홍선이 얼굴에 떠오르든 비굴한 미소를 또 띄여 가지고 홍선이 이러케 인사할 때에 병긔는 책상을 아페 노코 안저서무슨 책을 넘기고 잇다가 머리를 조금 들어서 홍선을 본뒤에가치 상례도 하지 안코 머리를 그 덕인 뿐이엇다 그리고 다시 넘는 책으로 눈을 떠러 트렷다

가련한 공자 홍선ーー그는벼칠전에 병긔에게 난초병풍을 선사하엿든지라 자긔가오기만 하면 병긔는 당연히 기쌔마저 줄줄 알엇다 이여긔에 반하여 드러 서는듯 차되찬 눈쎄를 본 홍선은 얼굴에나타내엿든 비굴한 미소를거더 치웟다 그러고 주인에 지시도 하기건에 밤치요 드러가서 달석 주저 안첫다

병긔는 눈을 구하려서 다시 한번홍선을 보앗다 그러고 그시간조차 아깝다는듯이 눈을급히 도로 본든 책으로

서서는 홍선따위는 보느사람의축에 너흘 가치조차 업섯다 며출전에 조롱삼어 홍선의난초를 칭찬하엿지만 그뒤에 곳그것을 이저버린그는 그뒤 홍선에게서 난초병풍이 왓다는보고를 드를때에 그병풍을 석지기에게 주어버리고 벌서 그의긔억에서 사라저버렷것이다마치 그에게 매일 드려오는 만흔선사품을 일일히 긔억할수가업는것과 마찬가지로홍선의화청신을 다밧은병풍따위는 벌서그의 긔억에서 사라저버린것이다

홍선의 얼굴에는 다시 비굴한미소가 나타낫다 그비굴한미소에 어울리는 비굴한말조차그의 입에서 나왓다 병긔의비위를조금이라도 마초아보려고마음에업는 말도서『금병매』가자미잇다는이야기를 두어마듸하여 보앗다 그러나이써는 병긔는 홍선서 말은듯지은 안햇나 그러고 정신을 집중하여 가지고『금병매』를 읽엇다 병긔의 비의를 마추노라고 중얼거리는 홍선의말은 단지 병긔의 독서를 방해하는데 지나지 못하엿다

한 두어마듸 헛소리를 하다가 이 긔수를 보고 홍선은 모른체하고 엇든 병긔의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흘러다 책에무슨 미소할만한 말이라도 잇는모양이엇다

괴희를 기다리든 홍선은이 미소에 달려 느려젓다 ー

『무슨 책이 오니어?』ー

병긔는 눈쎄에 그냥 미소를 셋채 힐긋 홍선을 보앗다 그리고 대답대신으로 책을 조금 들어서 그 뚜껑을 홍선에게 보여 주고는눈을 도로책으로 떠러트렷다

『금병매』(金瓶梅) 엇다 손님이와도 모른체하고 병긔가一심불란히 드려다보고 잇는책은무슨 귀중한 학문 경권이나시서가 아니오 한개의소설비사엇다 그소설에 열중하여 손님이와도 모른체하고 그냥 버려둔것이잇다 병긔세게 잇